

학습부진학생의 자기조절학습요인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Factors on Learning Motivation on Underachiever

Eun-Kyoung Kwon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요 약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표적인 주제가 학습부진 문제해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요인을 인지, 동기, 행동조절로 구성하고, 학습부진 대학생의 학습동기인 내적가치, 자기효능, 호기심 및 자신감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창원시 소재 A대학교의 학습부진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조절학습요인은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조절요인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절요인은 호기심 및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요인이 통합적으로 학습과정에 작용하므로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도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들을 참고하여 동기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주제어 : 학습부진,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자신감

Abstract The problem of poor learning has been a subject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the educational field since the mid 20th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the components of self - regulated learning into cognitive - control, motive - control, and behavior - control strategie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self - regulated learning on internal value, self - efficacy, curiosity, and self - confidence. The stud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depression in A university in Changwon city. The results showed that self - regulated learning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motivation. Second, the learning adjustment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 - efficacy. Finally, learning control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curiosity and self - confidence.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a comprehensive guidance system considering interaction is needed because various factors act integrally in the learning process. As a concrete method, it is imperative to develop a learning counseling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motivation level by referring to cognitive, synchronous, and behavioral factors.

Key Words : Underachievement,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Confidence

1.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주제가 학습부진 문제해결이다. 학습부진이
란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의 능력과 비교하여 기대하는
성취보다 실제 결과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Corresponding Author : Eun-Kyoung Kwon(cantatas@daum.net)

Received September 26, 2017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October 30, 2017

Published March 28, 2018

[1]. 학습부진은 반복적인 학업성취 실패로 인해 자기무력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불편감이 유지될 경우 정서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학습 장면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경험으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2]. 학교에서 학습부진은 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이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3].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은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학업문제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나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취업문제 등 대학생의 진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일과 직업을 갖는 일이 개인의 성취와 행복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4].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의 학습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사경고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진학문제나 취업문제 등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업부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 고등학교 때에는 교사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면 되었지만 대학에서는 자발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하며 학습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기본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학습에 대한 노력 자체를 놓아버리게 된다. 실제로 학사경고를 받으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학습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학기가 반복되고, 학사경고가 누적되어 제적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6].

사회가 변함에 따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판단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능동적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학습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3]. 기존의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교육적 환경 및 상황이 다르듯 개개인이 선호하는 학습법 및 효과적인 학습법이 다르다[7]. 자기조절학습이론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학습 상

황을 관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의미 있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으며, 이런 능력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장면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8].

학교에서 성공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의 사용이 두 집단 간의 차이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공하는 학습자는 학습을 할 때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실패하는 학습자는 학습을 할 때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학습전략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9].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학업에 대한 성취를 예언하고 교육적으로 훈련 가능한 구인으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법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학습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습부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3].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이 효과적인 학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요인을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전략으로 분류하고, 학습부진 대학생의 학습동기를 내적가치, 자기효능, 호기심 및 자신감으로 분류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습부진학생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적절한 정서적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은 물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학습부진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은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 학업적 성취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교사는 학급에서 진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정신과의사는 정서적인 문제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로 인식하고, 학부모는 기대치보다 못하는 경우로 인식한다[10]. 학습부진의 정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정의마다 포함되어 있는 공통요소는 학습자의 잠재가능성과 정상적인 지능이다.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면서 정서적인 문제나 선수학습의 결손으로 인하여 일정수준의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

하지 못한 학습자를 학습부진아라고 하였다[11].

결국 학습부진아란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학습습관 등의 문제로 최저학업성취수준에 이르지 못한 미도달 학습자로 정의할 수 있다[3].

2.2 자기조절학습

Zimmerman(1986)은 학습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습자 자신의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점검한 후 필요하다면 학습목표를 수정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학습활동과정으로 보았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자료의 특성, 학습목적, 학습방법을 포함한 정보나 기술을 스스로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12].

Pitrich & De Groot(1990)은 자기조절학습을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교실 상황에서 학업적 성취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지를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교실에서 학업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요인,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전략 요인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13].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할 때 학습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인지적으로나 동기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훈련은 학습자의 발달적 한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14]. 이처럼 자기조절학습은 각 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15].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정의는 인지적 측면에서 동기적 측면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최근에는 Zimmerman을 중심으로 연구된 인지적 · 동기적 ·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 학습은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의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 요소를 조절하고 환경적 요소를 통제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정보를 전환하고 처리하여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자

기조절학습요인을 Schunk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인지조절요인, 동기조절요인, 행동조절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선행 연구

Zimmerman과 Martinez-Pons(1988)등은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적 성취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데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 변량의 약 80%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17]. 성취아와 미성취아의 학습전략을 비교한 Zimmerman(1990)의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조절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적성취를 보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사용이 학업적 성취와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8].

Pitrich & De Groot(1990)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자기효능감, 학업적 성취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위 요소에서 자기조절변인과 본질적 가치변인, 자기효능감 변인이 인지적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13].

Schunk(1989)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전략을 학습시킴으로서 학업적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Weinstein 과 Mayer(1986)는 자기조절학습의 전략 사용 수준과 학업적 성취와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암송하기, 정교화하기, 조직화하기와 같은 인지전략은 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활동을 높이고, 학업적 성취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19].

김용수(1998)는 자기조절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이 전통적인 학습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병옥(2003)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전략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를 향상시키고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남해경(2006)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전략들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학습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이 향상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밝혔다[20].

김대명(2016)은 뇌교육명상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21], 이숙정·신경희(2013)은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22]. 오효숙(2017)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능력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내었으며[23], 이철영·이소영(2017)은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동기와 직무창의성,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24].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력 등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가 많이 부족한 학습부진 학생들에게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연구들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가설1. 자기조절학습요인이 학습부진학생의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인지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동기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행동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기조절학습요인이 학습부진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인지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동기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행동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기조절학습요인이 학습부진학생의 호기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인지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호기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동기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호기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행동조절요인은 학습부진학생의 호기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연구 설계

3.1.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조사는 창원시 소재 A대학교의 학습부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검사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부 정도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는 30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신뢰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자기조절학습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를 한 양명희(2000)[25]의 자기조절 학습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신뢰도는 인지조절 .81, 동기조절 .87, 행동조절 .74이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구성요인별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조절학습을 나타낸다.

(2)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는 김희영(1996)이 개발한 학습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intrich와 DeGroot(1990)이 만든 ‘학습동기화 방략 설문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 MSLQ)’를 최진식과 손종식(1993)이 MSLQ를 번안하고 수정한 ‘학습동기 방략화 검사지’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26].

학습동기 검사척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3개의 영역(내적가치 .88, 자기효능 .86, 호기심 및 자신감 .94)이고 문항수는 29개이며,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매우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조금도 그렇지 않다 1점’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2 연구구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지의 구성을 토대로 하여 측정하였다. 구성내용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Self-regulated learning sub-factor

Scale	Items	신뢰도
C.R.	1-16	.813
S.R.	17-31	.873
B.C.	32-46	.743

Table 2. Sub-factor and item composition of learning motivation test

Scale	Items	신뢰도
I.V.	1,4,7,10,13,16,19,22,25	.878
S.E.	2,5,8,11,14,17,20,23,26,28	.859
C., S.C.	3,6,9,12,15,18,21,24,27,29	.937

3.3 가설 검증

3.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결과 R²는 60.2%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1-1. 인지조절요인은 p값이 0.710(p<0.05)로서 내적가치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가설 1-2의 동기조절 요인은 t값이 3.996, p값이 0.001(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1-3의 행동조절요인은 p값이 0.996(p<0.05)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요인은 부진학생의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3. Result 1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 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871		1.254	.227
C.R.	.076	.067	.379	.710
S.R.	.756	.744	3.996	.001
B.C.	.001	.001	.006	.996
R ² =0.602, F=8.567 (p=0.001)				

* p<0.05, **p<0.01, *** p<0.001

3.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결과 R²는 72%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2-1. 인지조절요인은 p값이 0.410(p<0.05)로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가설 2-2의 동기조절요인은 t값이 3.475, p값이 0.003(p<0.01)

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2-3의 행동조절요인은 t값이 2.216, p값이 0.041(p<0.05)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요인은 부진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4. Result 2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 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79		-.515	.613
C.R.	.133	.125	.846	.410
S.R.	.512	.542	3.475	.003
B.C.	.409	.345	2.216	.041
R ² =0.720, F=14.578 (p=0.000)				

* p<0.05, **p<0.01, *** p<0.001

3.3.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결과 R²는 63.3%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3-1. 인지조절요인은 p값이 0.684(p<0.05)로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가설 3-2의 동기조절요인은 t값이 3.539, p값이 0.003(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3-3의 행동조절요인은 p값이 0.263(p<0.05)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요인은 부진학생의 호기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5. Result 3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 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504		.808	.430
C.R.	.075	.070	.413	.684
S.R.	.601	.632	3.539	.003
B.C.	.247	.206	1.158	.263
R ² =0.633, F=9.792 (p=0.001)				

* p<0.05, **p<0.01, *** p<0.001

4.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요인은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기조절학습요인은 내적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요인으로는 동기조절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조절, 행동조절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조절학습요인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요인으로는 동기조절요인과 행동조절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인지조절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학습요인은 호기심 및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동기조절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조절, 행동조절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학습과정에서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동기향상에 인지조절전략, 동기조절전략, 행동조절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통합적으로 학습과정에 작용하므로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도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학습부진학생을 학업성취에 대한 결과로서의 분류(학사경고)가 아닌 인지적·동기적·행동적 요소들을 참고하여 동기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학습상담을 통하여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계점을 살펴보면 학습부진의 원인별 분류를 통한 맞춤 조사가 실시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진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D. I. Kim. (1999), Educating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ies - the Prospective Agenda of Research and Practice for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 13-32.
- [2] S. O. Kim, G. O. Kim, S. D. Kim, S. D. Lee, H. S. Lim & S. M. Han. (2001), *Underachievers' Understanding and Education*, Seoul : HakJisa.
- [3] I. R. Lim. (2012),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nfiguration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in the Elementary School Underachievers*, 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 D. I. Kim, E. J. Shin, M.G. Lee & H. S. Kim. (2011), *Learning Counseling*, Seoul : HakJisa.
- [5] J. Y. Lee, B. M. Kim & E. J. Jang. (2013), Development of Program (Exploring Myself) for Unsuccessful College Students in Academic Achieve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359-384.
- [6] S. W. Kang, E. K. Lee & N. M. Yang. (2000),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221-242.
- [7] M. H. Shin. (2018),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On-Off line Convergenc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Students' Learn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85-90.
- [8] M. H. Shin. (1998), Promoting Learner's Self-Regulation Ability in Learner Controlled Computer Based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4(3), 177-197.
- [9] U. H. Chang. (1991), The Possibility and Problems of Training for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 10, 43-56.
- [10] T. H. Ha & H. G. Baek. (2005), Building an Ontology for Structured Diagnosis Data Entry of Educating Underachiev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1), 183-194.
- [11] S. H. Sin. (1979), *A review of Literature for Underachievers*, Seoul : KEDI.
- [12] S. Y. Jeong. (2002), *The effects of a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on the pattern chang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use in elementary fifth graders with different achievement levels*, 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3] Pi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14] Schunk, D. H. (1989), Progress self-monitoring ; effects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1, 89-93.
- [15] K. S. An & J. Y. Hwang. (2017),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ogra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Improve Willpow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413-425.
- [16] E. Y. Moon. (2010),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tudy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A

-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7]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8), Construct validation of strategy model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 [18] Zimmerman, B. J.(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 3-17.
- [19] Y. H. Cha. (2008),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s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20] S. H. Lee. (2012), *A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Underachievers in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A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1] D. M. Kim. (2016), The Effects of the Brain Education Meditation Program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77-84.
- [22] S. J. Lee & K. H. Shin. (2013), Effect of achievement goal directivit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the level of learning achiev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829-834.
- [23] H. S. Oh. (2017),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311-321.
- [24] . Y. Lee & S. Y. Lee. (2017), Multidimensional Effects of Learning Motives and Autonomy on Job Creativity and School Satisfaction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99-106.
- [25] M. H. Yang. (2000), *The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6] G. J. Choi. (201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권 은 경 (Kwon, Eun Kyoung)

[정회원]



-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 E-Mail : cantatas@daum.net